

제목 : 요한복음 12장 1-36절

본문 :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1.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마리아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같은 예수님 곁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2. 사람들이 기대한 왕과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지만 세상처럼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3.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높아짐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4.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빼앗기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중심성과 자기 이익, 자기 뜻을 붙잡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붙잡아야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놓을 때 참된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 괴로움 속에서도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 고통을 무조건 없애 주세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6.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은 수치와 죽음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영광과 구원의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빛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1. 마리아는 자신에게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내려놓거나 기꺼이 드리기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지금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죽어야 할 자기중심성, 욕심, 자존심, 고집은 무엇입니까?
4.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까?
5.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희생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생명과 열매가 나타났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